



경영지원처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우수사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보고

경영지원처-1753(2019.04.01) 관련, 선진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통한 지방공기업 신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실시한 2019년 우수사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가. 추진개요

- 연수일정 : 2019.05.07.(화) ~ 11.(토)
- 연수국가 : 싱가포르
- 연수주제 : 싱가포르 도시콘텐츠와 청렴문화
- 연수인원 : 7명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청렴도 우수자	감사실	기술4급	윤춘호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행정4급	정용기
봉사도 우수자	건축안전사업처	기술4급	암기옥
	신사업개발처	기술4급	문일엽
경영평가 기여자	감사실	행정4급	나상문
	분양보상처	행정5급	박우영
	경영지원처	행정5급	박은지

나. 연수지원금 내역

- 예산과목 : (관)사업비용 (항)영업비용 (세항)판매비와관리비 (목)국외업무여비
- 상세내역 : 1인 지원금 2,000천원 * 7인 = 14,000천원 (지원금액 이외에는 자부담)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합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기타
1	윤춘호	2,000	685	145	531	380	259
2	정용기	2,000	685	145	531	380	259
3	암기옥	2,000	685	145	531	380	259
4	문일엽	2,000	685	145	531	380	259
5	나상문	2,000	685	145	531	380	259
6	박우영	2,000	685	145	531	380	259
합계		14,000	4,795	1,015	3,717	2,660	1,813

우수사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보고

1 추진경위



- 연수일정 : 2019년 5월 7일(화) ~ 11일(토) / 3박 5일
- 연수국가 : 싱가포르
- 연수주제 : 싱가포르 도시콘텐츠와 청렴문화
- 연수인원 : 7명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청렴도 우수자	감사실	기술4급	윤춘호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행정4급	정용기
봉사도 우수자	건축안전사업처	기술4급	암기옥
	신사업개발처	기술4급	문일엽
경영평가 기여자	감사실	행정4급	나상문
	분양보상처	행정5급	박우영
	경영지원처	행정5급	박은지

2 주요일정



구분	지역	시간	주요일정
제1일 05/07(화)	인천	16:2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싱가포르	21:55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2일 05/08(수)	싱가포르	전일	▶ CPIB heritage centre 반부정부패 수사국 방문 ▶ 기관방문- URA 내셔널 갤러리 도시 계획관 방문 ▶ 보타닉 가든, 주룽새공원 방문
제3일 05/09(목)	싱가포르	전일	▶ 도시 개발 사례지 견학 - 가든스 바이더 베이 2동, 마리나베이 샌즈, MBS 스카이파크, 마리나 버라지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4일 05/10(금)	싱가포르	전일	▶ 복합 개발 사례지 견학 - 멀라이언 공원, 에스플레네이드 외관, 차이나 타운 ▶ 센토사섬 방문 ▶ 도시개발 사례지 견학 - 리버보트 탑승 및 클락키 견학
제5일 05/11(토)	인천	06:35	▶ 인천 국제공항 도착

3 주요 벤치마킹 내용



○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 싱가포르 부패방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를 조사, 방지하기 위하여 1952년에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Ch241)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적 기관이며 부패조사청의 조사 국장은 총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부패조사청(CPIB)는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부패가 없는 거래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 물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드러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기도 한다. 부패조사청(CPIB)은 부패행위자를 고발하는 것 이외에도, 부패행위에 취약한 행정기관의 제반 운영체계, 절차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며, 관련 부서의 장에게 부패예방법에 대한 권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시사점

싱가포르의 강력한 반부패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각 나라가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부패방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그에 맞추어 정책을 만들어야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URA)

- 도시재개발국(URA, Urban Regeneration Authority)은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vision)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직이다. 특히 도시재개발국(URA)에서는 상·하위 도시계획들을 직접 수립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문화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 있는 도시공간정보를 수집·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전시·출판·교육 등을 통해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대를 유도하고 있다.
-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는 도시의 계획·관리·개발을 전문성을 담보한 공공의 기관에서 도시의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도시를 계획→개발→보존→관리→홍보·교육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능하게 한다.
- 도시재개발국은 토지이용계획 상 기존 건물과 향후 계획되는 건축물을 나무색 모양으로 표시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실 개발지역에 그 청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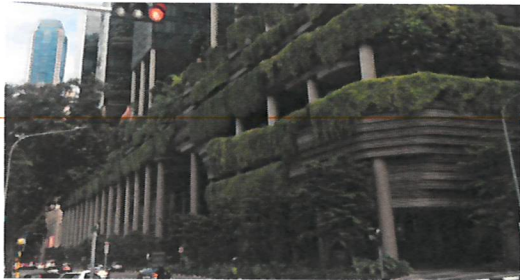
◆ 시사점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과 추진을 통해 깨끗한 도시, 녹색환경이 아름다운 도시, 삶의 질이 높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변모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향후 공사의 도시개발 시 참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친환경 도심개발지역 견학

- 세계 최초로 ERP(전자식통행료징수) 도입으로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시켰으며 COE(차량등록 및 구입에 관한 입찰)제도 도입으로 차량증가 억제, 소음, 먼지공해 방지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도심 건물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업용 간판 설치를 금지시켰고, 1971년 기념물 보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짧은 역사를 가진 싱가포르의 고고학적, 건축학적, 미적 가치가 있는 건물 또는 싱가포르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관공서 상가건물을 지정 보존하였으며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시 미관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강에서 운행하는 유람선들은 전기를 이용한 동력으로 교체하여 매연, 소음 공해 방지 등 훌륭한 공공시설 관리 운영으로 싱가포르를 찾는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



◆ 시사점

철저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짧은 역사의 도시지만, 곁에 보이는 요란함·사치스러움이 전부 아니라 실속 있고 내실 있는 나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

○ 도시 개발 사례지 견학

- 머라이언 공원

머라이언상은 머리는 사자이고 몸은 물고기인 상이며 싱가포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머라이언상을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 때문에 공원은 싱가포르의 인기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이다. 최고의 머라이언상은 싱가포르강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며 1972년 총리인 리관유(Lee Kuan Yew)가 이 머라이언상의 설립 기념식을 열었다. 2002년에 지금의 마리나만(灣)의 끝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높이 8.6m, 무게 70t에 이른다. 예전에 수마트라 왕자가 새로운 영토를 찾아 이곳에 당도했을 때 흰 갈기를 가진 사자를 보고, '사자의 도움(싱가푸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머라이언 상에는 두 개의 얼굴, 즉 낮과 밤의 얼굴이 있다. 낮에는 싱가포르를 오가는 배와 푸르게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늠름한 수라이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밤이 되면 아늑한 조명을 받으며 요염하면서도 편안한 암 라이온의 자태를 보여준다.



-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시 속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지은 곳으로, 대규모의 열대 숲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슈퍼 트리(Super Trees Grove), 돔 형태로 지어진 온실인 플라워 돔(Flower Dome)과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로 유명하다. 슈퍼트리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나무모양의 인공 조형물과 식물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다. 플라워 돔에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 클라우드 포레스트에는 습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이 구분되어 있다. 자칫 삭막할 수 있는 대도시의 개발에 친환경 요소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 센토사섬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는 섬으로 크기는 동서길이 4Km, 남북길이 1.6Km이다. 지명은 말레이어(語)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으나,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센토사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순환버스 등으로 주요시설과 관람객을 연결 운송하여 손쉽게 모든 곳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주요 시설로 해양수족관인 언더워터월드와 음악 분수 등이 있고, 아시아 빌리지에서는 각 민족별 예술품과 전통음식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희귀석박물관·싱가포르역사박물관·해양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있다. 남쪽해안에는 실로소·센트럴·탄종해변 등의 휴양시설이 있고, 각종 해양 스포츠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곳에는 자연적인 바다모래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매년 인도 등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모래를 구입하여 인공해변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주룽 새 공원(Jurong Birdpark)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상적인 조류 사육장인 주룽 새 공원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600여종, 8000여 마리의 아름다운 새들이 거대한 울타리안에서 서식하고 있다.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플라밍고, 마코, 무소새와 앵무새들의 쇼는 재미있고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50여종의 바다새와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정글에서 온 100여종의 새들도 함께 서식하고 있다.



◆ 시사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은 인력으로 만들어 낸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변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개발된 땅이 많고 관광상품 또한 리조트 시설과 골프장 등인 것인 반면, 싱가포르는 머라이언 파크, 센토사 섬, 보타닉 가든, 주룽 새 공원 그리고 고층빌딩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고려하여 전남의 관광산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종합의견



- 국가의 미래와 개발·발전을 위해 앞을 내다보며 불리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지속적인 집행으로 국가의 비전을 실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은 물론, 엄격한 제도 속의 불편함을 참아내며 준법 의무를 다하여 다인종 간의 조화를 훌륭하게 일궈 싱가포르만의 발전적인 다인종 문화를 만들어 낸 싱가포르인들의 의식을 교훈 삼아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한 소감과 우수한 사례는 추후 업무 시 자료로 활용하여 전남도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다.

① 도시환경 분야

- 싱가포르가 주는 첫 번째 인상은 잘 정돈된 그리고 깨끗한 도시라는 점이다. 독립 초창기부터 도시계획에 따라 철저히 계획되어 전주가 없는 도시, 빌딩과 나무와 숲이 어울리는 환경은 전깃줄이 엉켜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강한 정부의 통제력이 싱가포르 성공적인 도시개발의 원동력이겠지만 국민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정책 또한 발전의 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친환경 중심의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② 교통정책 분야

-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 또한 볼 수가 없었으며 종행 중 흡연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보행자를 기다려 주는 자동차, 사람들도 느긋해 보인다. 소위 잘사는 나라의 국민임에도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소박함에서 그들의 절제된 여유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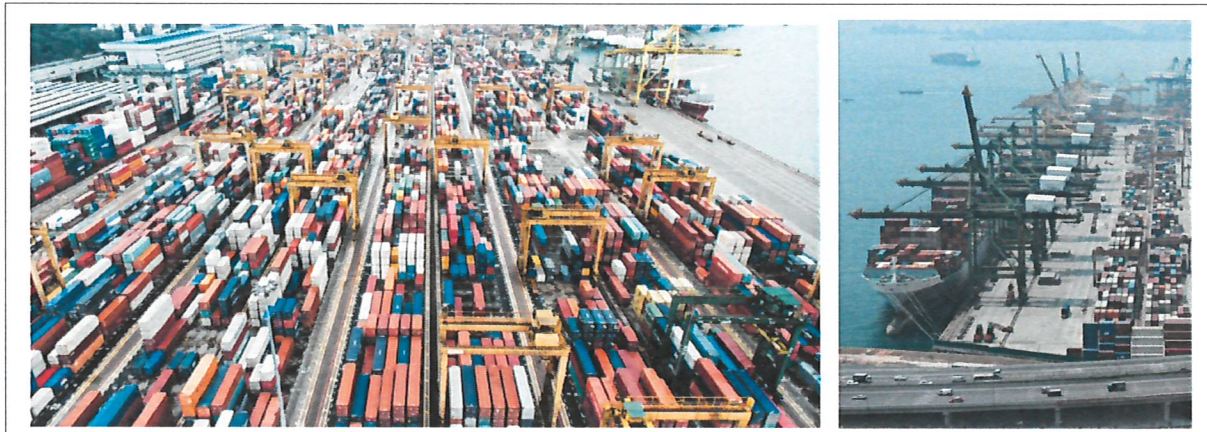
경적을 울리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나 도로에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싱가포르 교통문화의 기초가 엄격한 교통법규 때문이나, 차량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자동차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느는 등 자동차가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싱가포르의 엄격한 제도 시행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경제정책 분야

-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경제개발청을 설립하여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세제지원, 부지제공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경제개발청에 집중시키는 등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컨벤션시설 유치, 호텔산업 육성, 물류센터 건립 등 인근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계 물류의 거점도시

④ 청렴분야

- 싱가포르 고위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 공직자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부패행위 방지법과 부패행위조사국(CPIB)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높은 보수가 이러한 청렴성을 이끌어내게 하였다.



강력한 청렴정책으로 투명한 사회 정착